

한경 BUSINESS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외국인 대상 임대 사업 최적지는
2012 한국의 부자들 입체 분석
유럽서 다시 뜨는 마르크스주의 왜?

‘나무 재테크’ 쑥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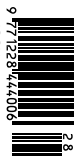
소비자 사로잡은
상반기 히트 상품의 비밀

대우경제연구소, 여의도 정치권서 화려하게 부활하다
재계서 두각 나타내는 영남대 출신 파워맨들 현주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하이마트 전격 인수한 속사정



한국경제신문

값 4,000원



쓰레기 처리에 고심하는 브라질

전국 몸살... 폐기물 처리업 전망 ‘긱’

정철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중남미팀장



브라질의 폐기물 운반·수집·처리 산업의 규모는 연간 8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라질 전역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브라질 특수 및 일반 폐기물처리업체협회(Abrelep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국민이 하루에 1인당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은 2009년에 이미 1.152kg에 이르러 1.2kg인 유럽 수준에 도달했다. 2010년 브라질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6000만 톤 정도로 전년 대비 1.8%나 증가했다. 최근 브라질 중산층의 소득 증가에 따라 구매력이 향상되면서 포장지와 같이 썩지 않는 폐기물이 늘고 있지만 그 증가 속도에 비해 관리 시스템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배출된 폐기물 중 10%는 수거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수거된 폐기물 중 42%가 부적합한 지역에 매립됐고 재활용률은 2%에 그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논의됐던 ‘고체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극적으로 통과시켰고 2010년 8월부터 이 법이 시행됐다.

‘고체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은 매립지 증설을 제한하고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 비율을 높여 현재 브라질의 열악한 공중 보건 및 환경 상태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 처리 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고형 폐기물 연료(RDF: Refuse Derived Fuel)화 시설 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금융 지원, 세제 혜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전기에

에너지공사(ANEEL)

너지공사(ANEEL)는 고형 폐기물을 50% 이상 사용하고 30MW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 고형 폐기물 연료화 시설 가동 시 전송 및 공급료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현재 상파울루 주 반테리안치스시와 상호세시에는 고형 폐기물 연료화 시설이 가동 중이며 상파울루 주의 중요 공업 지역인 상베르나르도 두 캄포시에서도 민·관 합자 투자 방식으로 고형 폐기물 연료화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까지 각 주·시 정부는 발생한 폐기물의 최소 20% 이상을 재사용·재활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은 고형 폐기물 연료화 시설 등의 설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체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은 연방·주·시 정부, 생산자·공급자까지 협력해 수명을 다한 제품 및 포장재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폐기물의 운반·수집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의 폐기물 운반·수집·처리 산업의 규모는 연간 8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기업이 이 분야에 진출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폐기물 처리 업체인 포스벨이 브라질 기업 엠비엔탈사와 ‘순환형 매립지 정비시설’과 ‘생활 폐기물 전처리 시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라우데자네이루 주 니테로 이시 모로두 세우 매립장에 수출한 것이 유일한 진출 사례로 알려져 있다. 국내 모 대기업이 헤시피 주에서 폐기물 처리 및 소각 발전소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도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사업 일정 확정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폐기물 처리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의 폐기물 성상, 폐기물 처리 실태, 폐기물 발생 정도 등에 관한 기초 정보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 정부로부터 주어지는 각종 혜택 등을 고려해 사업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규상 지원 또는 제한 사유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 국내 유력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력과 금융 조달을 결합한다면 수익성과 향후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